

전남 쌀 대표품종 확대로 부가가치 높인다

RPC운영협의회 정기총회
새청무·신동진 2개 품종
계약재배 점유율 70%로 확대
TV홈쇼핑 등 판매채널 공략



광주·전남농협RPC운영협의회 조합장 30명은 최근 담양 수북농협에서 올해 전남 대표 쌀 단일품종 생산·유통 확대를 위한 정기총회를 열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 쌀 농가가 출고가격이 높은 단일 품종을 확대해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다.

농협 당국은 올해 전남 벼 품종 '새청무'가 육성사업 2년차를 맞아 전남 대표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토'는 육성 5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담양 수북농협에서 광주·전남농협RPC운영협의회 소속 조합장 30명과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본부와 협의회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쌀 단일품종 확대 및 고품질화 ▲쌀 소비 촉진운동 '일상공 운동' 전개 ▲직파재배 확대, 개량물고·소형전기운반차 보급 등 영농비 절감을 위해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본부는 출고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쌀 단일품종의 유통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일품종 쌀 평균 출고가는 일반 쌀에 비해 1kg당 140원이 높았다. 전남 품종 '새청무'는 40kg

(조곡)당 1000원 더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쌀 공동브랜드 '풍광수토'는 기존 신동진 품종 뿐만 아니라 새청무를 추가해 20kg당 1000원 이상 수취가격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광주·전남 27개 미곡종합처리장(RPC) 단일품종 쌀 유통 점유 목표는 50%로 잡았다.

강진통합RPC와 완도농협RPC는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인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에 선정돼 '새청무'와 '조명1호' 생산·유통 거점단지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역 전략품종을 육성·보급하기 위해 RPC를 연계한 쌀 생산·공급·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최고품질 쌀 산업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명1호는 밥맛이 좋고 쓰러짐과 수발에 강한 품종으로 전남농업기술원이 지난 2015년 육성해 보급한 조생종 품종이다.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수발아(이삭 싹 나기)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협RPC들은 새청무와 신동진 등 2개 단일품종에 대한 계약재배 점유율은 70%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새청무 계약재배 면적은 지난해의 2배인 2만ha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유통물량 역시 10만t으로 전년 2배 수준이다.

전남본부는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해 종자용 새청무 약 1000t을 농협RPC 계약재배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새청무 품종 쌀은 TV홈쇼핑과 온

라인 쇼핑몰로 판로를 확대하고 편의점 김밥용 재료에도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이룬 '풍광수토'는 생산 참여농협RPC를 정예화한다. 올해는 10개 RPC가 풍광수토 생산에 참여하며 계약재배·유통·판매 등에 적극 나선다. 풍광수토 매출액은 2017년 6억원, 2018년 43억원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양용호 RPC운영협의회장(금성농협 조합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요식업 및 중도매인의 쇠퇴, 학교급식 판로 부진 등 RPC 사업여건이 쉽지 않다"며 "RPC 운영협의회에 소속된 모든 조합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쌀 매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광주·전남 쌀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컬푸드 직매장서 실무 익히세요”

aT, 24일까지 교육기관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수 직거래사업장에서 로컬푸드 관련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T는 직거래 참여 주체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현장교육기관' 운영자를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기관 모집은 우수 직거래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로컬푸드 직매장 뿐 아니라 직거래장터 사업자도 교육운영자로 신청할 수 있다.

평가로 통해 선정된 총 3개소 내외의 기관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재비, 홍보비 등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 대상은 직거래사업장 운영자, 농업인 등이다.

실무교육은 로컬푸드의 이해 등 기초과

정부터 사업장 설치·운영, 기획생산, 가공품 개발 등 심화과정까지 단계별 교육으로 이뤄진다.

상품포장, 출하·전원 등 사업장 운영 현장실습이 병행된다.

지난해에는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북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장교육기관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총 2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43개 직거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60명을 가르쳤다.

자세한 내용은 aT 홈페이지와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용호 aT 유통이사는 "지난해 교육참석자의 91%가 해당 실무교육이 아주 유익했다는 만족도 결과가 나왔다"며 "우수사업장의 운영노하우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업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에 어업인 배제 안돼”



수협 전남본부 대책회의

전남 수산업협동조합장 20명이 지난 18일 신안·영광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지역 조합장, 상임이사 등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해상 풍력 정책 추진에 대해 당

사자인 어업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입지 선정 등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본격적인 금어기인 25일 이후 김영록 전남

지사를 항의 방문하고 대규모 결기대회도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수산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조합장, 상임이사 등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해상 풍력 정책 추진에 대해 당

사자인 어업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입지 선정 등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본격적인 금어기인 25일 이후 김영록 전남

지사를 항의 방문하고 대규모 결기대회도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음식 덜어먹기 실천 '안심식당' 전국 확대

광주 광산구 145개·전남 952개 식당에

미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지정된 안심식당은 1400개에 달한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광산구 145개·전남 952개 식당에

미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지정된 안심식당은 1400개에 달한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덜어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광주보호관찰소
인력지원·주거환경개선 추진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가 올해도 농촌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19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협업체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봉사 집행협업체에는 광주·전남 6개 시·군 농협 인력증개센터도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사회봉사인력 우선지원과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지원, 마을공동사업,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등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569명이 농촌돌봄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경제적 지원효과는 2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광주본부는 설명했다.

광주본부는 사회봉사대상자를 포함해 연 1만2000명의 인력을 농촌에 유·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 아열대 과일 브랜드 '오매향' ...프리미엄 시장 공략

망고·백향과 등 5개 품목
21.6ha 재배 ...전국의 29%

망고, 백향과(패션 프루트) 등 주요 아열대 과일 생산량 3분의 1이 전남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전남 아열대 과일 브랜드 '오매향'을 만들어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선다.

2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 망고·백향과·올리브·파파야·구아바 등 5개 품목 재배면적은 21.6ha로, 전국 재배면적(74.6ha)의 29%에 달한다. 재배지역은 담양·영광·고흥·장흥 등으로 84개 농가가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과일은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아열대 과수 8개 품목에 포함된다.

전남본부는 "아열대 과일 5개 품목의 재배면적은 전남지역이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남은 아열대 농산물 재배

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는 전남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벨리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건립을 유치하기도 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이를 토대로 아열대농산물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브랜드 개발, 품목별 기술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는 7개월 동안 개발과정을 거쳐 아열대농산물 브랜드 '오매향'을 만들어냈다.

또 아열대농산물 재배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1차 애플망고를 시작으로, 2차 커피, 3차 바나나, 4차 백향과 등 품목으로 확대했다. 지난달에는 전국 호텔·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 구매 담당자(바이어)를 초청해 시식·품평회를 열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